

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(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8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인제, 권영희, 김제리,
김희걸, 노승재, 서윤기,
여 명, 이병도, 이준형,
이태성, 최 선 의원(11
명)

1. 주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위드 코로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“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(with Covid-19)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,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음.

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·경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환된 방역대책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 요구되는 실정임.

이에 따라,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적인 위드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제안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-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(COVID-19)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 체계의 운영과 적극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 등 우수한 대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
- 하지만, 코로나19의 재유행과 장기화로 인해 소비 침체, 소득불균형 심화, 소상공인의 폐업과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.
-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70%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(with Covid-19) 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,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.
- 서울시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·소상공인과 비정규직·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격변하는 산업·경제 환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대응과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결의한다.

2021. 10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